

## 세계농업문화유산제도(GIAHS)에 대하여

이 성 희

(sain@ekr.or.kr)

한국농어촌공사 농어촌연구원

김 영 득

(youngkim@ekr.or.kr)

한국농어촌공사 농어촌연구원

Q: 세계농업문화유산제도(GIAHS)의 개념은?

A: GIAHS는 “Globally Important Agricultural Heritage Systems”의 약자로서,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열망과 환경과의 동반적응을 통해 진화되어온 생물다양성이 잘 유지되고 있는 토지이용체계와 생태경관으로 정의되며, 생물다양성, 토지이용체계, 경관이라는 핵심개념이 포함되어 있다.

한편, 농업문화유산의 개념은 2003년 EU회원국의 지역개발 관련부처 장관회의(CEMAT)에서 채택한 “유럽농촌문화유산가이드(European Rural Heritage Guide)”에서 유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가이드에는 지속가능한 개발의 핵심요소로서 농촌문화유산, 문화유산의 관찰과 분류, 지역사회와의 관계분석 등 계획수립에 필요한 요소들을 담고 있으며 농촌지역의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하여 농촌문화유산을 자원으로 하는 개발계획의 중요성과 원리를 채택하고 있다.

Q: 세계농업문화유산제도(GIAHS)의 목적은?

A: 어떤 국가 또는 지역의 사회나 환경에 적응하면서 몇 세기에 걸쳐 발달하고 형성되어 온 농업적 토지이용, 전통적인 농업과 관련되어 육성된 문화, 경관, 생물다양성이 풍부한 세계적으로 중요한 지역을 차세대에 계승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Q: 세계농업문화유산제도(GIAHS)의 유래는?

A: FAO(UN 세계식량농업기구, 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에서 세계적으로 중요한 전통적 농업제도와 생물다양성, 문화적 다양성과 지식체계들이 정책 및 시장의 실패, 빈곤 및 인구압력, 부적절한 개발전략 등으로 인하여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을 인식하고, 세계적으로 중요한 농업유산에 대한 인식제고를 위하여 국제적으로 인가된 제도를 만들자는 취지에서 2002년 제정하여 시작되었다.



**Q: 세계농업문화유산제도(GIAHS)의 인증 절차는?**

**A:** 첫째, 국가추진을 받아 입후보지 등록신청 (FAO본부), 둘째, 현지답사 및 서류심사(FAO본부), 셋째, GIAHS 심사를 거쳐 인정, GIAHS 인정심사 심의회는 2년에 한 번씩 개최하는 심사회에서 등록이 인정되며, 등록이 되어도 FAO로부터 자금지원이 되는 것은 아니다.

**Q: 세계농업문화유산제도(GIAHS)의 인증 기준은?**

**A:** GIAHS에 등록되기 위한 기준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되고 있다. 첫째 해당 시스템의 고유한 특성에 관한 기준, 둘째 정황적 기준, 셋째 프로젝트 수행기준이다.

GIAHS는 시스템이 보유하고 있는 생물다양성과 생태계 기능, 경관과 토지 및 수자원 관리, 식량과

구분	기준	내용
I. 시스템의 고유특성	1. 현저한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생물다양성과 생태시스템</li> <li>- 경관, 토지, 수자원의 관리</li> <li>- 식량안전과 생계유지</li> <li>- 사회조직과 문화</li> <li>- 지식체계와 및 농가 단위의 기술</li> <li>- 기타 시스템에 의해서 형성된 재화와 용역</li> </ul>
	2. 지속성의 역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제적 활력 및 지속가능성</li> <li>- 적응적 능력</li> <li>- 인간 생태적 지속가능성</li> </ul>
	3. 세계적 중요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공성</li> <li>- 부가가치</li> </ul>
II. 정황성	1. 대표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리적, 생태적, 제도적 대표성 및 영향력</li> <li>- 전시효과</li> <li>- 현저한 대표성</li> </ul>
	2. 외부의 위협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외부적 위협의 존재</li> </ul>
	3. 정책 및 개발적용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책의 적용가능성</li> </ul>
III. 프로젝트 수행성	1. 프로젝트 통합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파트너쉽</li> </ul>
	2. 공동 펀드의 능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동 펀드 가능성</li> </ul>
	3. 프로젝트 접근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제협약</li> <li>- 프로그램적 접근</li> <li>- 생태계적 접근</li> <li>- 지역사회의 권한</li> <li>- 분권화</li> </ul>

\* 농식품부, 농업 유산(遺産)제도 본격 도입(2012. 4) 보도자료

생활의 안전, 사회조직과 문화, 지식체계와 농업기술, 그리고 이 제도에 의한 산출물 등이 대상이다. 또한 대상은 경관차체만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농림어업활동 시스템이 매우 중요한 기준이 되고,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를 분리하여 지정하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지정하고 있다.

**Q: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제도와와의 차이점은?**

**A:** 농업문화유산제도와 관련이 있는 세계적인 제도는 세계문화유산, 세계농업문화유산, 랍사협약 세 가지가 있다.

세계문화유산제도는 1972년 제 17차 유네스코 정기총회에 참가한 각국의 대표자와 전문가들이 인류의 소중한 유산이 인간의 부주의로 파괴되는 것을 막기 위한 목적으로 세계문화 및 자연유산협약을 체결함으로써 탄생되었다.

랍사협약은 세계적으로 중요한 습지의 파괴를 저지

하기 위하여 1971년 이란의 랍사에서 랍사협약이 체결되었으며, 습지는 자연적 또는 인공적인 습지를 모두 포함하고 있고, 2008년 제 10차 랍사르회의(한국 창원)에서 논도 하나의 습지로 결의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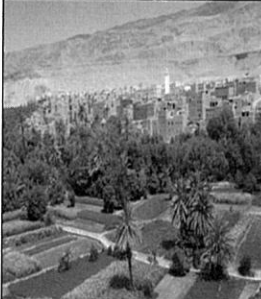








**Q: 세계농업문화유산제도(GIAHS)의 지정 현황?**

**A:** FAO에서는 2011년말 현재 10개의 대상지역(Pilot Systems)과 다수의 후보지역(Candidate Systems)을 지정하고 있다. 특징적인 것은 10개의 대상지역중 6개가 논관개지역에 해당되는 지역이다.

**□ 지정된 대상지역**

10개의 대상지역은 ①안데스 농업(페루), ②치로 에섬 농업(칠레), ③이푸가오 계단식논(필리핀), ④마그레브 오아시스(알제리, 튀니지), ⑤송사리 농업(중국), ⑥한니족 계단식논(중국), ⑦완족의 전통쌀 문화시스템(중국), ⑧목가 마사이 시스템

구 분	세계문화유산제도	세계농업문화유산제도	랍사 협약
주관부서	- UNESCO	- FAO	- IUCN(세계자연보전연맹)에 상설 사무국
근거법	- 세계유산협약	-	- 물새 서식지로서 국제적으로 중요한 습지에 관한 협약
대상	- 문화유산 · 기념물· 건조물군: 건축물, 조각 및 회화, 유물 및 구조물 · 유적지: 고고학적 유적지 - 자연유산 · 자연의 기념물, 자연유적지 · 생물 종의 생식지 및 자생지	- 독창적인 농업 제도 및 생태경관지역 · 농업과 관련된 수려한 경관지역 · 농업생물다양성의 보전지역 · 고유한 농사지식체계의 적응지역	- 소택지, 습원, 이탄지 또는 물로 된 지역으로 갯벌, 호수, 하천, 양식장, 해안, 논 등이 포함됨 - 수심이 6m를 넘지 않는 해안

구 분	내 용		구 분	세계문화유산제도	
필리핀	<p>〈이푸가오다랑이 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산지대 대규모 다랑이 논</li> <li>- 생물다양성의 보전</li> </ul>		알제리 · 튀니지	<p>〈머그레브 지역의 오아시스 농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막지대의 토지이용</li> <li>- 대추야자, 나무, 곡물의 상호작용</li> <li>- 삶과 휴식의 공간</li> </ul>	
중국	<p>〈벼-물고기 농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물고기를 이용한 벼농사</li> <li>- 지역의 영양수준향상</li> <li>- 화학비료 및 농약사용의 감소</li> </ul>		일본	<p>〈사도섬 농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파오기를 이용한 저농약 농법</li> </ul>	
중국	<p>〈하니 다랑이 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산간지대 토지 및 물 이용제도</li> <li>- 1만년 이상의 역사성</li> <li>- 7만ha 이상의 규모</li> <li>- 효율적 물이용시스템</li> </ul>		중국	<p>〈완족의 전통 벼 농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의 고유 품종 유지</li> <li>- 병충해와 척박한 땅에 강한 품종</li> <li>- 논 들레 숲의 물 공급 및 생물다양성 보존 기능</li> </ul>	
페루	<p>〈안데스산맥 농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잉카시대 농법유지</li> <li>- 저지대(옥수수), 중지대(감자), 고지대(방목장)</li> <li>- 밭 주변 굴에 물을 저장하여 냉해 방지</li> </ul>		칠레	<p>〈칠레 농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감자의 원산지</li> <li>- 200여종의 감자 농업</li> </ul>	
일본	<p>〈노토반도 사토야마와 사토우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계단식 및 해변의 토지 이용 농법</li> </ul>		케냐 · 탄자니아	<p>〈목가 마사이 시스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목축시스템과 고원생태시스템</li> </ul>	

(케냐, 탄자니아), ⑨노트반도 사토야마와 사토우미 농업(일본), ⑩사도시 사토야마 따오기 농법(일본)이다.

□ 후보지역

9개의 후보지역은 대상지역은 ①밀라 솔라농법(멕시코), ②치남파 농법(멕시코), ③레몬 밭(이태리), ④카르파티아 지역의 농업-생태체계(슬로바키아, 우크라이나), ⑤코라푸트 지역의 전통농업(인도), ⑥소피나 베타스 시스템(인도), ⑦카나트 관개체계(이란), ⑧콰시카이 유목 목가(이란), ⑨웨웨 관개 시스템(스리랑카)이다.

Q: 우리나라의 세계농업문화유산제도 (GIAHS) 참여현황?

A: 우리나라에는 국가지정 문화재 3,326건(2010년 기준)중 농어업유산과 농어촌유산으로 분류할 수 있는 문화재가 399건이 있다. 예를 들면, 김제

벽골제, 남해가천다랑이논, 제천의림지, 남해 죽방렴 등과 같은 것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도 GIAHS에 등록시킬 수 있는 농업문화유산 대상지가 많이 있다. 이에 정부에서는 세계중요농업유산(GIAH) 신청을 준비하기 위하여 지자체로부터 64건의 '농어업유산' 신청을 받았다(경북 14건, 전남 11건, 경남 11건, 제주 10건, 충남 9건, 경기 3건, 강원 3건, 광주 2건, 충북 1건 등) 64건에 대하여 전문가 현지조사를 거쳐 10여건을 국내 농어업유산으로 지정하고, 이중 세계 중요농업유산 신청대상을 선정하여 FAO에 신청할 계획이다.

참고문헌

1. 윤원근, 최식인, “한국 농어업·농어촌 유산 발굴과 보전”, 농업전망 2012,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 www.fao.org/nr/giash.
3. 농어업 유산(遺産)제도 본격 도입(보도자료), 2012, 농식품부.
4. 강승진, “FAO 세계중요농업유산(GIAHS) 등록을 위한 제주지역 과제와 추진방안”, JDI FOCUS No136(2012.5.31), 제주발전연구원.